ISSN 2093-3282 Vol. 1 No. 18

10- 18호

Provincial Economic Trends in China

중국 성(省)별 동향 브리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137-747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 108 2010년 6월 23일

장쑤(江蘇)성 기업의 국제화 현황과 시사점

KIEP 1990-2010

노 수 연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 권역별 · 성별 연구단 초청연구원 (syno@kiep.go.kr, Tel: 3460-1284)

▣ 중국정부의 해외진출 장려에 힘입어 중국기업은 다양한 형태의 국제화 전략을 시행해왔으며, 최근 들어 장쑤성을 위시한 지방 소재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가시화되고 있음.

- 2009년 말까지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액은 총 2,200억 달러이며, 2002~09년간 연평균 60%의 성장을 보였음. 또한 지방 소재 기업의 투자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14.5%에서 2007년 21.5%로 증가추세임.

▣ 장쑤성 기업은 2005년 이래 직접투자 및 증시 상장 등을 통해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음.

- 2009년 말까지 해외직접투자 누계액은 30억 달러를 초과했으며, 주요 투자자는 민영기업이고, 홍콩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지역에서 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전통 강세 투자업종인 제조업과 함께 최근 서비스업의 투자가 늘고 있으며, 자원 및 연구 개발 등 진출영역이 확대되고 있음.
- 1999년부터 시작된 해외상장은 2009년 말 현재 67개 사로 늘어났으며, 민영기업이 주축이 되어 특수목적법인(SPC) 형태로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지역에 주로 상장됨. 장쑤성의 주요 산업을 망라하고 있으나 태양광 및 도자기 산업 등 특정 업종 집중현상도 두드러짐.

▣ 2010년부터 우리나라에도 장쑤성 기업이 진출을 시작했으므로 향후 장쑤성 기업의 한국 진출 촉진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장쑤성 기업의 직접투자 목적을 고려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R&D 환경과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의 이점 등을 적극 홍보할 수 있음.
- 장쑤성 해외상장사 대부분이 민영기업이며,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입소문과 현지 보도가 상장 대상지역 선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현지 우량 민영기업을 대상으로 한 현지 홍보도 고려해볼 수 있음.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 가속화되는 중국기업의 국제화

■ 중국정부는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일명 走出去) 촉진을 통해 중국기업의 국제화를 지원하고 있음.

- 상무부(商務部)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가 공동으로 5월 19일 난징(南京)에서 "제2회 중국(장쑤)기업 다국적 투자 심포지엄"을 개최함.

○ 이번 심포지엄은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을 장려·지원하기 위한 행사로서, △ 중국기업 해외진출의 특징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외진출의 기회요인 및 리스크 통제 △ 금융 및 중개 기관의 역할 △ 다국적 M&A 경험과 교훈 등을 논의함.

- 중국정부는 2001년 WTO 가입 이후 더욱 치열해진 국내외 경쟁 속에 글로벌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국기업의 다양한 국제화 전략 활용을 장려하고 있음.

○ 국제경영전략이론에 의하면 기업의 국제화 수단은 크게 △ 해외수출, 라이선싱, 프랜차이징, 직접투자와 같은 직접적인 수단과 △ 해외주식시장에 자사 기업주식을 공개하고 상장하는 간접적인 수단이 있음.[1)]

○ 해외증시 상장의 경우, △ 자본조달 △ 국제적 인지도 획득 △ 경영, 재무 구조의 개선 등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므로 국제화 전략의 하나로서 중요함.[2)]

■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지방 소재 기업들의 진출도 가시화되고 있음.

- 해외진출의 한 형태인 직접투자의 경우, 2009년 말까지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액(누계)은 총 2,200억 달러이며, 2002~09년간 연평균 약 60%씩 성장했음.

○ 2008년 투자총액은 559억 700만 달러를 기록했음. 이 중 농수산업, 공업 등 생산활동 관련 산업이나 부동산 등 비(非)금융계 투자액이 418억 5,917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68.5% 성장했음.[3)]

- 전체 비금융계 해외직접투자액에서 지방 소재 기업의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14.5%에서 2007년에는 21.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1) 김익수(2006), 「중국기업의 국제화 전략: 추진배경, 기대효과 및 한계」, 『현대중국연구』.
2) 아르누 드 마이어(Arnoud De Meyer) 외(2007), 『글로벌 기업의 조건』, 서울: 교보문고 .
3) 중국 상무부(商務部) 자료임(CEIC에서 인용).

- 또한 2009년 말까지 중국의 對한국 투자액은 신고 기준 26억 7,575만 달러,[4] 도착 기준 8억 9,000만 달러에 달하며, 주로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 설립형태로 서비스업에 진출해 있음. 상대적으로 해외진출 경험이 있는 국유기업 위주로 투자가 진행되었음.[5]

○ 한국이 전체 해외투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미미하나, 중국이 투자 유치와 해외진출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경쟁력 있는 중국기업의 해외유망사업 진출을 적극 장려할 전망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됨.

■ 장쑤성 정부의 해외진출 장려에 힘입어 토착 민영기업의 해외진출도 최근 늘어나고 있음.

- 장쑤성 정부는 △ 역내 경쟁력 있는 기술 및 설비를 수출하고 △ 방직, 기계, 전자, 가전제품, 경공업, 의약, 농업, 수리시설 건설 등 비교우위가 있는 업종에 진출할 것을 권유하는 등 구체적인 진출전략을 제시하면서 해외진출을 장려하고 있음.[6]

○ 이에 따라 장쑤성 민영기업의 해외진출이 2005년 이후 활발해졌으며, 초기의 무역창구 개설이나 공장설립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인수합병, 지분교환, 해외상장 등 진출방식이 보다 다양해지고 있음.

- 특히 2010년 들어 우리나라에도 국내증시 상장과 직접투자가 시작되었으므로, 향후 장쑤성 기업의 한국 진출 촉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장쑤성 기업의 국제화 현황[7]

가. 해외직접투자

■ 2009년 말까지 장쑤성 기업의 누계 해외직접투자총액은 30억 달러를 초과했으며, 민영기업이 주요 투자자임.

- 2009년에 신규로 비준된 해외투자 프로젝트 수는 332개로 전년동기대비 43.1% 증가했고, 투자액(계약 기준)이 최초로 10억 달러를 돌파한 10억 6,0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동기대비 67.6% 증가했음.[8]

4) 지식경제부 외국인투자 통계(www.mke.go.kr).
5) 위화(于華) 상무부 국제투자촉진국 부국장의 강연내용임(한·중 투자세미나 및 제5회 중국중부투자무역박람회 설명회(2010. 6. 14)).
6) 戚成栋(2009), 「장쑤 기업의 '해외진출(走出去)'에 관한 의견」, 『商业经济』.
7) 본고에서는 국제화 전략 중에서도 최근 한국 진출 시 활용된 직접투자와 증시 상장을 중심으로 분석함.
8) 중국 지방별 해외투자규모를 살펴보면, 실제 투자액을 기준으로 할 때 장쑤성은 2006~09년간 후난

- 2010년 1분기 해외투자 프로젝트는 총 109건으로 전년동기대비 98% 성장했으며, 계약 기준 투자총액은 4억 3,0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56% 증가했음.

- 중국 전체 해외직접투자의 주요 투자 주체가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국유기업인 것과는 달리, 장쑤성의 해외투자 주체는 주로 민영기업임(표 1 참고).

표 1. 장쑤성 해외직접투자 현황

지 표	2000년	2005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4분기
신규 비준 프로젝트	34	160	252	232	332	109
기업(enterprise)	32	132	187	187	n.a.	n.a.
민영기업	19	104	155	138	n.a.	n.a.
기구(institution)	2	28	65	45	n.a.	n.a.
투자액 (계약 기준, 만 달러)	1,783	20,504	46,784	63,459	106,000	43,000

자료: 『장쑤 통계연감 2009』, 각종 보도자료 정리.

■ 아시아가 장쑤성 기업의 최대 투자대상지로서, 신규 프로젝트 건수 및 투자액 모두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그림 1. 중국 기업의 해외투자대상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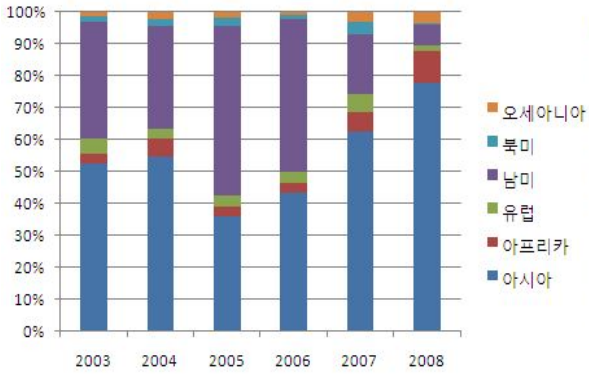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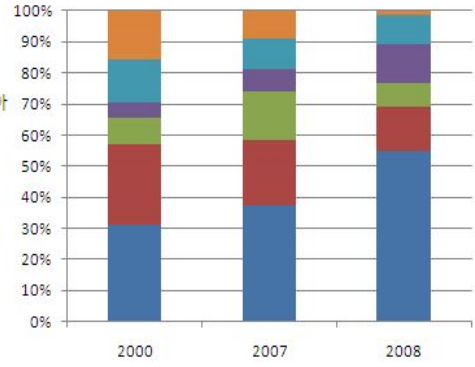


그림 2. 장쑤 기업의 해외투자대상국



주: 투자액(계약 기준) 기준임.

자료: CEIC, 『장쑤 통계연감 2009』.

- 아시아는 2000년 장쑤성 기업이 전 세계에 투자하는 신규 프로젝트의 44.1%와 투자액의 31.1%를 차지했으며, 2008년에는 전체 신규 프로젝트의 57.8%, 투자액의 55.4%를 차지함(그림 2 참고).[9]

(湖南)성, 상하이시, 산둥성, 랴오닝(遼寧)성, 저장(浙江)성, 광둥(廣東)성, 푸지엔(福建)성 등에 이어 꾸준히 10위권 이내에 들고 있음.

- 특히 홍콩은 장쑤성 기업의 최대 투자대상지임. 전체 신규 프로젝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5.8%에서 2008년 25.4%로 증가했고, 투자액은 2000년 전체의 4.9%에서 2008년 24.1%로 증가했음.

■ 제조업이 주요 투자영역이나 최근 서비스업 투자가 늘어나고 있음.

- 산업 분포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전통적으로 가장 크지만, 2008년부터 3차 산업이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도소매업과 리스·비즈니스서비스업의 비중이 큼(표 2 참고).

- 의류방직, 경공업, 의약, 화공, 기계, 전자, 가전 등 장쑤성의 전통적 우위산업뿐 아니라 최근 들어 자원개발, 기술연구개발 등으로 투자영역이 확대되고 있음(표 3 참고).

표 2. 장쑤성 해외투자 산업 분포

산업 \ 연도	2007년		2008년	
	신규 비준 프로젝트(건)	투자액 (계약 기준, 만 달러)	신규 비준 프로젝트(건)	투자액 (계약 기준, 만 달러)
전체	252	46,784	232	63,459
1차 산업	0	0	2	4,050
2차 산업	82	28,589	87	29,746
제조업	72	23,534	68	22,068
3차 산업	170	18,195	143	29,664
도소매업	75	7,416	55	6,133
리스·비즈니스 서비스업	72	1,198	52	8,943

자료: 『장쑤 통계연감 2009』.

표 3. 장쑤성 기업의 주요 해외투자 사례

연번	연도	투 자 자	투 자 내 용
1	2005	홍더우그룹(紅豆集團), 광밍그룹(光明集團), 이두어그룹(益多集團), 화타이투자컨설팅(華泰投資置業咨詢公司)	캄보디아에 장쑤성 최초의 해외 경제무역협력단지 건설

9) 중국기업 전체 및 장쑤성 기업의 해외투자대상지역을 보면, 둘다 아시아의 비중이 가장 크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그림 1, 그림 2 참고) 중국 전체 투자액에서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3년 52.7%에서 2008년 77.9%로 증가한 것으로 볼 때 아시아지역 편중현상이 장쑤성(2001년 31.1%에서 2008년 55.4%로 증가함)보다 더 두드러짐.

표 3. 계속

연번	연도	투 자 자	투 자 내 용
2	2005	야푸자동차 (亞普汽車有限公司)	러시아에 자동차부품 생산공장 건립(1,100만 달러 출자)
3	2006	썬테크(無錫尙德)	일본의 솔라셀제조업체인 MSK 인수(8억 위안)
4	2007	사강그룹(沙鋼集團)	영국 Stemcor사 소유인 호주 Savage River 광산의 90% 지분을 매입(1억 800만 달러)
5	2008	우시야오밍캉더 (無錫藥明康德)	미국 AppTec Laboratory Services 인수 (1억 6,300만 달러)
6	2008	쑤저우공업원구 해외투자 유한공사 등	라오스에 라오스 · 중국 완샹개발유한공사(老中萬象開發有限公司) 설립
7	2008	진성부동산투자그룹 (金盛置業投資集團有限公司)	홍콩에 가구매장 단지 설립(6,000만 달러)

자료: 각종 보도자료 정리.

나. 해외증시 상장[10)]

■ 장쑤성 기업은 1999년부터 해외증시에 상장했으며, 2009년 말까지 67개 사가 상장했음.

- 장쑤성 최초의 해외 상장은 1999년 홍콩에 상장한 민영기업 중국희토공고유한공사(中國稀土控股有限公司)임.

- 2009년 말 현재 총 67개의 장쑤성 기업이 해외에 상장했으며, 모집액은 60억 달러 이상에 달함.[11)]

○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08년 4월 기준 중국 150개 기업이 해외에 상장했음.[12)]

■ 민영기업이 상장사의 절대다수를 차지함.

- 2008년 말까지 장쑤성의 해외 상장 민영기업 수는 56개임. 연도별로는 △ 1999년 1개 △ 2001년 1개 △ 2002년 1개 △ 2003년 3개 △ 2004년 5개 △ 2005년 8개 △ 2006년 11개 △ 2007년 25개 △ 2008년 1개 사가 상장해, 주로 2005~07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해외 상장이 이루어짐.

■ 아시아지역에 집중 상장되어 있음.

10) 정부 측 공식 통계자료 부재로 인해 언론보도자료 및 연구보고서를 참고로 작성했기 때문에 항목별로 기준연도가 다소 다름.
11) 『新华日报』(2010. 1. 3), 「장쑤 기업, 상장 통해 1,454억 위안 융자」.
12) www.stats.gov.cn.

- 2008년 말 해외 상장 민영기업 56개 사 중 40개 사가 아시아, 특히 싱가포르(21개)와 홍콩(19개)에 집중 상장했음. 이는 싱가포르와 홍콩이 동일한 화교경제권이라 상대적으로 접근이 쉽기 때문으로 분석됨.[13]

■ 해외 상장사의 업종 분포는 다양하나, 일부 업종은 집중도가 높음.

- 해외 상장을 목적으로 특수목적법인(SPC)[14] 설립을 신청한 장쑤성 민영기업의 업종은 조선, 태양광, 화공, 의약, 야금, 경공업, 기계, 전자, 건자재, 상업무역, 에너지, 환경보호 등 장쑤성 대부분의 주요 산업을 망라하고 있음.

- 태양광산업, 도자기산업 등 일부 업종의 경우 집중도가 높은 편임.

○ 태양광산업의 경우, 장쑤성 전체에서 트리나솔라(Trina-Solar), 솔라펀(Solarfun), 아터쓰태양광전자(창수)유한공사(阿特斯光伏電子(常熟)有限公司), 중뎬전기(난징)태양광유한공사(中電電氣(南京)光伏有限公司) 등 썬테크를 제외한 4개의 태양광 관련 업체가 해외에 SPC를 설립했음.

○ 현지의 주요 산업이 집중적으로 해외에 SPC를 설립하는 현상을 보임. 일례로 도자기산업으로 유명한 이싱(宜興)시는 장쑤이싱정도유한공사(江蘇宜興精陶有限公司), 이싱신웨이리청희토유한공사(宜興新威利稱稀土有限公司), 우시판야고온도자유한공사(無錫泛亞高溫陶瓷有限公司) 등 도자기회사가 설립한 SPC가 많음.

■ 지리적으로는 주로 난징(南京), 쑤저우(蘇州), 우시(無錫), 창저우(常州) 등 장쑤성 남부(蘇南)지역에 소재한 기업 위주임.

- 일례로 우시시의 경우, 2010년 3월 기준 28개 사가 해외 상장함.

○ 국가별로는 △ 싱가포르 14개 △ 홍콩 8개 △ 미국 뉴욕 3개, 나스닥 1개 △ 영국 런던 AIM 1개 △ 한국 1개사가 상장했음. 2010년에는 뤼녠국제(瑞年國際), 이싱커디현대농업발전유한공사(宜興科地現代農業發展有限公司), 장인신하오제지(江陰新浩再循環紙業), 이싱시우시후안전선케이블(宜興市無錫滬安電線電纜)이 상장했음.

■ 역외금융센터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해외 상장하는 간접적인 형태를 선호함.

- 중국기업의 해외 상장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음. 직접적인 방법은 국무원 증권위원회 비준을 거쳐서 상장하는 경우로서,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13) 나머지 16개 사는 미국(12개), 영국(3개), 노르웨이(1개)에 상장함.
14)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설립하는 일종의 유한회사임.

국가 및 지역(홍콩, 뉴욕, 싱가포르, 캐나다 등)의 증권거래소에만 상장할 수 있음. 간접적인 방법은 국내기업의 해외 관련자가 해외에서 주식을 발행하고 상장하거나 해외 상장사를 인수해 대신 상장하는 방법임.[15]

- 장쑤 기업은 버진아일랜드, 케이맨제도, 버뮤다제도 등 조세 및 외화 관리 규제가 까다롭지 않은 역외금융센터(Offshore Financial Center)에 SPC 형태로 지주회사를 설립한 후, 국내자산을 이 회사에 투입해 홍콩, 싱가포르, 미국 등지에 상장시키는 방법을 많이 활용함.

3. 장쑤성 기업의 국내 진출 사례

가. 직접투자: 장쑤 화청(江蘇華程工業製管股份有限公司)[16]

■ 장쑤 화청은 2010년 5월 11일 경상북도, 포항시, 화청코리아(주)[17]와 공동으로 4자 간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함.

- 장쑤 화청은 포항 외국인투자지역 및 부품소재전용공단에 면적 3만m^2, 종업원 200명 규모의 탄소강 튜브 및 파이프 제조공장을 2011년 상반기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2010~14년까지 5년간 총 2,200만 달러를 투자할 것임.

- 향후 스테인리스강, 티타늄강, 니켈강 등을 생산해 고합금강 수출시장에 진출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요 플랜트 건설 및 발전설비 등에 사용되는 부품을 국내에서 생산함으로써 일부 부품의 국산화 기여와 함께 중국기업의 국내 생산모델이 될 전망임.

■ 장쑤 화청은 장쑤성 장자강(張家港)시에 소재한 민영기업으로서, 장쑤성 기업으로서는 최초로 한국에 공장을 신축한 사례임.

- 장쑤 화청은 1997년 설립된 민영기업으로, 강관 생산을 시작으로 희귀금속, 항공지면설비, 화공계측기, 건자재,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종합그룹임. 2008년 매출액은 10억 위안이고, 종업원은 1,600명 규모임. 판매처는 중국 국내가 76%, 수출이 24%임.

- 장쑤 화청 관계자가 2010년 1월 29일 협력업체인 알펙 포항공장 기공식에 참가해 포

15) 陈蓓蓓(2009), 「장쑤 민영기업 해외 상장 이후 실적 분석」, 장난(江南)대학 석사학위 논문.
16) 경상북도 투자통상국 제공 자료와 화청코리아 관계자 인터뷰를 중심으로 작성함.
17) 2010년 3월 장쑤 화청(75.5%)과 국내자본(24.5%)이 합작 설립한 국내법인으로서, 장쑤 화청의 자회사임. 카본스틸, 스테인리스강, 니켈과 티타늄을 생산하며, 2014년 830억 원 매출을 목표로 함.

항시 관계자로부터 산업단지 관련 정보를 얻은 후 지난 2월부터 수차례 현장 방문 및 투자상담을 진행한 후 5월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음.[18]

- 장쑤 화청은 기존에 두산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국내업체에 파이프를 납품하고 있었으며, 앞으로 포항 공장이 준공되면 △ 단기적으로는 중국에서 1차 가공을 마친 원자재를 한국에서 최종 가공해 국내업체에 납품하고 △ 장기적으로는 한·미 FTA 체결을 계기로 포항 공장을 대미 수출의 기지로 활용할 계획임.

- 최종 입지로 포항을 선택한 데에는 △ 2009년 8월 개항한 영일만신항의 국제물류환경 △ 포스텍, 국가나노기술집적센터,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방사광가속기 등 우수한 R&D 환경 △ 입주기업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19] 등에 대한 기대 때문임.[20]

나. 국내증시 상장: 차이나하오란(中國浩然再循環有限公司)[21]

■ 차이나하오란은 2월 5일 국내증시에 상장한 최초의 장쑤성 기업임.

- 차이나하오란은 해외 상장을 위해 홍콩에 설립된 지주회사임. 싱가포르 신하오 환경투자유한공사를 통해 자회사인 장인신하오제지(江陰新浩再循環紙業有限公司)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으며 원료용지(폐지) 회수·재활용사업과 친환경 고급 코팅백판지 생산사업을 영위하는 친환경 자원 재생 전문 기업임.[22]

○ 장인신하오제지는 1990년 설립 당시 국유기업이었으나, 2002년 민영화되었고, 2007년부터 기존의 제지업과 폐지펄프산업을 병행함. 현재 포장용 도화지인 백판지의 경우 장쑤성 백판지 시장의 3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중국 전체 시장 4위 규모이고, 향후 업계 1, 2위를 목표로 하고 있음.

○ 폐지펄프시장은 시장 자체가 초기 단계인지라 규모가 미미하나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고, 현재 장인신하오제지는 중국 내 최대 규모의 회사 중 하나임.

- 장쑤성 현지에서는 장쑤성 최초의 한국 상장기업이며, 한국에 상장한 중국기업 중 최초의 친환경 재생펄프 생산업체라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음.[23]

---

18) 『EBN 산업뉴스』(2010. 5. 12), 「중국 강관업체 지자체 지원으로 국내 입성」.
19) 장쑤 화청의 포항 공장부지는 외국인투자지역으로서 50년간 무상으로 임대되며, 향후 5년간 조세감면 우대정책의 수혜를 받음.
20) 『신소재경제신문』(2010. 5. 11), 「포항 부품소재공단, 2,200만 불 투자 유치」.
21) 차이나하오란 웹사이트(www.xinhaopaper.com) 내용 및 주간사였던 신한금융투자 관계자의 인터뷰를 토대로 작성함.
22) 『파이낸셜뉴스』(2010. 1. 18), 「中 차이나하오란 2월 5일 상장」.
23) 『江苏经济报』(2010. 2. 12), 「장인 신하오(新浩), 한국 증시 상장」.

■ 중국 상장사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전반적인 '차이나 디스카운트' 때문에 상장 이래 주가가 저평가되고 있으나, 향후 전망은 밝음.

- 차이나하오란은 해외융자를 목표로 애초에 독일증시 상장을 추진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한국증시로 선회한 사례임.

그림 3. 차이나하오란 상장 이후 월별 주가

자료: KRX한국거래소(www.krx.co.kr).

- 뛰어난 성장성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제한 및 불투명성에 대한 의심이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해 상장 이래 저평가되고 있음.[24]

- 그러나 노동집약적인 산업과는 달리 제지분야는 기술력이 가미된 분야이며, 시장 전망이 밝은 만큼 향후 국내증시에서 촉망받는 종목임.

4. 시사점

■ 향후 장쑤성 기업들의 해외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므로, 한국으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발굴과 강점 홍보가 중요함.

- 최근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향후 2~5년 내 신규 및 확대 해외투자를 희망하는 중국기업이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특히 장강삼각주 기업들의 해외투자 의지가 강해 16%의 기업이 해외투자를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음.[25]

24) 실제로 국내에 상장된 중국기업들의 주가는 전반적으로 홍콩 거래가격의 1/3, 중국의 1/5 수준에 그치고 있음. 또한 주가수익비율(PER)의 경우,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대표 우량기업 100종목을 대상으로 만든 지수인 코스닥 프리미어의 평균 PER가 약 20배인데 반해, 차이나하오란은 6월 17일 현재 6.6배에 불과함.

25) 『中国贸易报』(2010. 5. 6), 「2010년 중국기업 해외투자 현황 및 의향 조사 보고: 중국기업 해외투자 다원화 추세」.

- 해외투자의 주요 목적은 △ 투자국의 각종 우대정책 활용 △ 포화상태인 중국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시장 개척 △ 선진기술 및 경영노하우 취득 등을 들고 있음. 따라서 이들의 수요를 고려한 인센티브 제공과 시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음.

○ 해외투자 경험이 있는 장쑤성 기업 중 과반수 이상이 제조업분야이며, 특히 장쑤 화청의 사례처럼 한국 투자를 결정하게 된 배경으로 기술력을 꼽는 것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우수한 R&D 환경을 적극 홍보하는 것도 한 방법임.

○ 또한 한국을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활용하려는 시도도 최근 활발해지고 있으므로 한·미, 한·EU 등 주요 국가와의 FTA 체결 협의 진행상황을 홍보할 수도 있음.[26]

■ 2010년 최초로 장쑤성 기업의 해외증시 상장 대상 국가에 한국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향후 장쑤성 우량 민영기업의 국내증시 상장을 적극 유도할 수 있을 것임.

- 중국증시는 대기시간이 길고 조건이 까다로우며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최근 많은 중국 민영기업이 해외증시 상장에 관심을 갖고 있음.

○ 특히 한국은 국제적인 인지도가 낮은 중국기업들도 도전해볼 만한 틈새시장으로 최근 각광받고 있음. 한국 입장에서도 △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 금융시장의 다양화와 선진화, 국제화를 실현할 수 있으므로 중국 우량기업의 한국증시 상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도 한 방법임.[27]

- 장쑤성 기업으로는 최초로 차이나하오란이 한국증시 상장에 성공함으로써 향후 보다 많은 장쑤성 민영기업이 한국증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될 전망임.

○ 실제로 장쑤성 화이안(淮安)시에 소재한 고량주 제조업체인 G그룹도 이미 한국 H사와 대표 주간사 계약을 체결하고 2010년 하반기 IPO를 추진 중에 있음.[28]

○ 중국기업의 한국증시 상장 계기는 대체로 현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입소문과 현지 보도에 기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29] 장쑤성 우량 민영기업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현지 홍보도 고려해볼 수 있음. KIEP

26) 실제로 대만의 유명 자전거제조업체인 G사의 경우에도 한국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에 따른 국내 자전거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함께 주요 국가와의 FTA 체결을 한국 투자의 핵심조건으로 피력하고 있음.
27) 해외우수기업의 상장 유치를 위해 한국거래소 및 한국계 증권회사가 세계 각국에서 홍보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곳은 중국이 유일함.
28) H증권 관계자 인터뷰(2010. 5. 28).
29) 일례로 2010년 5월 현재 국내에 상장된 12개 중국기업 중 6개 사가 푸지엔(福建)성 출신의 민영기업인데, 이는 초기에 푸지엔성 소재 화풍집단(華豊集團)이 상장에 성공하면서 현지 민영기업가들 사이에 한국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됨(H증권 관계자 인터뷰, 2010. 5. 28).